

# 손흥민과 이강인, 합작골 나올까...오늘 태국과 월드컵 예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맞대결  
30승7무8패로 전적 앞서지만 방심 금물  
'하극상 논란' 이강인, 태도 변화도 관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강호인 태국을 만난다. 지난 아시안컵 당시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사건 이후 처음 열리는 A매치에서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골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임시로 A대표팀을 맡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국제 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이후 26일 오후 9시30분 태국 방콕의 라자 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4차전을 소화한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5-0 승), 중국(3-0 승)을 꺾어 C조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이번 2연전 결과에 따라 조기에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은 승리뿐 아니라 확

실한 과정까지 쟁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달 카타르에서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64년 만의 우승을 노렸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팀 분위기도 좋지 않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여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이 화해했고 황 감독이 두 선수를 모두 대표팀에 부르며 상황이 나아지는 듯했으나, 등 돌린 여론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실상가상 아시안컵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선수와 협회 직원이 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한 사실과 축구대표팀 유니폼 뒷거래 의혹이 제기돼, 대한축구협회가 해명하는 일이 연이어 터졌다.  
대표팀에게 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는 떠나간 지지를 다시 얻어야 하는 숙제가 담겨있다.

또한 선수에 이어 직원 관리까지 실패한 축구 협회로서는 '숙죄'의 의미가 담긴 중요한 경기가 됐다.  
혹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3차전 경기가 매진된 만큼,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다시 국민들과 축구팬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이 대신 베이징 국가대표팀 '캡틴'인 손흥민 선수와 합작골을 만든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특점에 강한 손흥민을 향해 도움 능력이 뛰어난 이강인이 정확한 패스를 전달해 골을 합작한 뒤, 함께 기뻐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실제 이들은 중국과의 예선 2차전에서, 한국이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골을 함께 만들어낸 적이 있다. 이강인이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이강인의 도움으로 손흥민이 A매치 골을 넣은 건 중국전이 처음이었다.  
그때처럼 이번 태국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같이 골을 만들어낸다면 비관 여론 역시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도 있다. 전력상 한국이 태국보다 강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전력뿐 아니라 역대



손흥민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예선 태국과의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적에서도 한국이 태국에 30승7무8패로 크게 앞서지만, 최근 태국의 기세가 좋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16강에 오르는 등 변방을 넘어 아시아 북쪽으로 자리 잡았다.  
수파촉 사랏(콘사도레 샛포로), 수파차이

차이디드(부리람 유나이티드), 수파낫 무에안타(리본)로 이뤄진 공격진의 역습이 날카롭다.  
임시인 황선홍 감독이 처음 팀을 이끄는 한국과 달리, 태국은 일본 출신의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 체제에 완전히 적응한 분위기다.

## 전남은 지금 축구의 봄... '제18회 미르기 축구대회' 성료

총 20개팀 400여명 참석

2024년 창단 30주년을 맞은 전남드래곤즈의 지역사회가 축구봄으로 물들고 있다. 전남드래곤즈가 후원하며 광양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미르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광양시 마동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진 제18회 미르기 축구대회는 전남드래곤즈가 지역 축구 동호회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대회다. 총 20개팀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장년부, 중년부, 청년부 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됐다.  
축구발전과 지역 화합의 장을 위한 미르기 축구대회는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 답지 않게 박진감 넘치는 축구대회라고 호평을 받았다.  
전남드래곤즈는 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광양시축구클럽팀과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지역 유소년 축구발전과 홈 경기 방문 등 지역 축구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약속했다.  
이번 대회 장년부에서는 동광양FC가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으로는 섬진강FC, 공동 3위로는 빛고을FC와 선사인FC가 차지했다. 중년부 우승은 새바람FC가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섬진강FC 그리고 공동 3위로는 새부리



FC와 백운FC 차지하였다. 청년부 우승은 남부 FC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백운FC, 공동 3위로는 새바람FC와 섬진강FC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선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장, 서동용 의원, 김규홍 전남드래곤즈 사장, 안강석 광양시 축구협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을 광양시축구협회와 전남드래곤즈가 함께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전남드래곤즈가 홈 개막전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우리 광양시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 광양은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전남드래곤즈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드래곤즈는 다가오는 24일 오후 2시에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구 FA컵) 2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와 31일 오후 2시 K리그2 4라운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홈 2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홈 개막전 김포를 상대로 4-0 대승을 기록한 전남은 홈 2연전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KLPGA '장타 여왕' 윤이나 징계 해제 4월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기대주이자 '장타 여왕'으로 주목 받다가 오규 플레이로 징계를 받은 윤이나(21·하이진즈)가 정식으로 복귀한다.  
윤이나의 매니지먼트 크라운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3월20일부로 윤이나 선수의 징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크라운은 "윤이나 선수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징계 종료 후 첫 출전 대회로 4월4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겸손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이나는 2022년 6월 DB그룹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오규 플레이)로 골프규칙을 위반했다. 이를 뒤늦게 신고해 출전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올해 1월 절반 정도로 감경됐다. 이에 따라 출전 정지 기간은 2022년 9월20일부터 2025년 9월19일까지에서 올해 3월19일까지로 변경됐다.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잡음 끊이지 않았던 야구인생

프로야구 선수 시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두산 베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오재원(39)이 은퇴 후 마약 투약 혐의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재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재원을 체포했다.  
두산 팬들은 선수 시절 센스 있는 플레이로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었던 오재원이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에서 16년간 활약한 선수였다. 2011년 46도루를 기록해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통



세 번이나 우승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은퇴 후에도 그의 거친 입담은 팬들의 눈살

## 두산 시절 욕설, 상대 선수와 언쟁, 부정 배트 논란 해설위원 당시 양창섭·박찬호 저격했다 자진 사퇴

산 타율 0.267에 1152안타 289도루 521타점 678득점의 성적을 남겼다.  
그는 선수 시절 경기 도중 수많은 욕설로 눈총을 받았다. 욕을 하는 입 모양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상대 선수와 언쟁을 벌이고, 심판에 항의하고, 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두산을 제외한 팬들은 오재원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 크게 비난했다.  
2021년에는 KBO로부터 공인 받지 않은 배트를 써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KBO로부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은퇴 후 오랫동안 두산 감독을 맡았던 김태형 감독(현 롯데 자이언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고마운 지도자를 논하는 자리에서 김태형 감독을 제외한 후 "김태형 감독은 선수들에게 고마워야 한다.

을 찌푸리게 했다.  
스포츠 방송의 해설위원을 맡았던 당시에는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양 주장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2023년 6월24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이 SSG 랜더스 타자 최정에게 몸에 맞는 볼을 기록했다.  
이를 지켜본 오재원은 빈볼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 일로 당시 양창섭과 오재원은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저격한 일이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난 코리안 특급을 매우 싫어한다. 한 번씩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 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저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해 논란에 휩싸였다.

##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 도전' 피겨 이해인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세계선수권에 처음 나왔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하고 싶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싱글 김연아 이해인(고려대)이 "즐거는 마음으로 타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인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벨 센터에서 열리는 2024 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프리스케이팅은 22일 벌어진다.  
쇼트프로그램을 하루 앞둔 19일 이해인은 벨 센터에서 공식 훈련을 가졌다. 밝은 표정으로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보일 기술 점검을 마쳤다.  
함께 여자 싱글에 출전하는 김채연(수리고), 유영(경희대)도 함께 최종 점검을 했다.  
이해인은 지난해 일본 사이타마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시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역대 두 번째였다.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2022~2023시즌을 기본 좋게 마쳤던 이해인은 2023~2024시즌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두 차례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는 연달아 4위가 돼 메달을 따지 못했다. 2022~2023시즌 금메달을 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는 11위에 머물렀다.  
세계선수권에서 만회를 노리는 이해인은 "전체적으로 점프 퀄리티가 좋지 않아 뛰기 전에 망설이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회전수 부족이나 연결 점프 뛰기 전에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공식 훈련에서 생각보다 점프가 괜찮았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다"며 "점프를 뛸 때 재미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프를 뛸 수 있을지 신경 쓰면서 연습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 금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수확해 적응은 기대가 쏠리지만, 이해인은 "부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인은 "경기 전에 긴장은 되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며 "2년 연속 메달을 따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세계선수권에



처음 나왔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달 초 열린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서민규(경신고)가 남자 싱글 금메달을, 신지아(세화여고)가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딴 것은 이해인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이해인은 "후배들이 어린 나이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자랑스럽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기분이 다 좋아졌다"며 "어린 선수들이 잘해줘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흐뭇한 마음을 내비쳤다.